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구성요인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분석: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김 명 소[†]

호서대학교 경상학부

임 지 영

서울대 심리과학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혹은 좋은 삶(good life)의 구성요인들을 탐색해 보고 이를 측정하는 검사를 제작한 후, 주관적인 안녕감(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그리고 부적 정서)과의 관계를 성별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세 차례의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3개 도시의 대학생 425명이 참여하였다. 1차 조사에서 60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바람직한 삶의 특성들을 조사한 결과, 196개의 특성들이 도출되었다. 중복된 특성들을 제외한 후, 바람직한 삶의 특성들 132개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작하여 2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특성이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6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균 3점 이하의 중요도를 보이는 문항들을 제외한 최종 112 개의 특성들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14개의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들로 분류하였다. 이 특성들을 바탕으로 각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제작하고 이를 165명의 또 다른 대학생 집단에게 실시하여 그들 자신의 현재의 삶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검사와 함께 Dicner 등(1985)의 삶의 만족도 척도와 정서적 안녕감 척도를 실시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들과 관계성을 살펴본 결과, 기대한 바와 같이 남녀 대학생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와는 정적인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 정서와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들이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또한 바람직한 삶의 특성들 중주관적 안녕감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연구들에서와 같이 자기수용 요인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로 남자 대학생의 경우 대인관계, 신념, 가족정체성, 경제력이, 여자 대학생의 경우 경제력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바람직한 삶, 좋은 삶, 주관적 안녕감

* 본 논문은 한국심리학회 2002년 연차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 : 김명소, (110-745)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120-1, 호서대학교 경영학부

E-mail : mskim@office.hoseo.ac.kr

지난 20년 동안 심리학자들을 위시한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삶의 질(quality of life) 또는 안녕감(well-being)에 대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시켜왔다. 이와 같이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게 된 이유는 긍정적 정서가 단순히 부정적 정서의 반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 단순히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Ryan & Deci, 2001).

그렇다면 삶의 질 또는 안녕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두 가지의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Ryan & Deci, 2001). 하나의 입장은 쾌락적 관점(hedonic view)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즉 쾌락적 관점에서는 삶의 질이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을 의미한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정서,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Diener, 1984). 삶의 만족도란 삶의 상황들에 대해 개인이 내리는 인지적 평가의 부분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정도를 말한다.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객관적 상황들에 대해 한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 경험을 말한다.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높은 삶의 만족도, 적은 부정적 정서경험, 그리고 많은 긍정적 정서경험을 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입장은 인간의 행복은 덕(virtue) 있는 삶을 통해 얻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적 관점(eudaimonic view)이다. 즉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쾌락적 행복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삶 또는 진정한 자아(true self)와 일치하는 삶에서 얻어진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을 견지하는 연구자들은 한 개인이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있는 정도가 삶의 질을 대표한다는 주관적 안녕감의 기본 골격에 반기를 든다. 대신 이들은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well functioning)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삶의 질이란 현대적 의미에서의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또는 바람직한 삶(good life)을 의미한다.

행복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Ryff(1989)는 여러 심리학적 이론들을 기초로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6개의 영역을 제시하면서 이를 주관적 안녕감에 대비해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PSW)으로 명명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구체적으로 자아수용(self acceptance: SA), 긍정적 대인관계(positive relations with other: PR), 자율성(autonomy: AU), 환경에 대한 지배력(environmental mastery: EM),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PL),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PG)이다. 따라서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독립적으로 혹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고,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들은 집단주의 또는 개인주의 문화가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도 영향을 줌을 보여주고 있다(조명한, 차경호, 1998; Diener & Suh, 2000, 참조). 예를 들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정적 상관관계는 집단주의 국가에 비하여 개인주의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며(Diener & Diener, 1995), 타인간의 원만한 관계성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정적 상관관계는 개인주의 국가에 비하여 집단주의 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Kwan, et al.,

1997). 또한 Lee, et al.(1999)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가족, 대인관계,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또는 종교 등이 서양문화권에 비하여 동양문화권에서 보다 빈번히 언급됨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중요하지만 서양문화권과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내적인 특성들을 표현함으로써 타인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문화적 배경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들은 심리적 안녕감 즉 바람직한 삶이 의미하는 바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련성을 연구한 국내 연구들은 그 결과가 서구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서양문화권에서와 달리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자아수용성외에 긍정적인 대인관계와 같이 집단주의 문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차경호, 1999;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이러한 결과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화에 따라 바람직한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에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의 척도가 우리나라에서도 구성타당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지만(김명소 등, 2001), 심리적 안녕감의 6가지 차원이 서양 문화 특히 개인주의적 문화에 기초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Christopher, 1999) 우리 문화권에서 바람직한 삶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 혹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청년 후기 혹은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예비일꾼이며, 이들의 성공적인 발달과업 수행과 행복감은 이들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와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생은 과연 행복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우리의 교육 현실과 입시지옥으로 인해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부모로부터의 독립, 동료집단과 어울리기, 신체적 구조나 생리적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이 지체된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한 대부분의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다양한 대인관계, 사회적 가치관의 수용, 자기 탐색, 대학 졸업 후의 진로, 대학에서의 학습과 학문탐구, 결혼 준비 등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삶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각 대학의 학생생활지도 관련기관에서 대학생들의 문제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으로 주로 각 대학 자체의 문제 진단이나 적응에 초점을 둔 것들이다. 반면 문제를 발견하고 진단하고자 하는 부정적 견해에서 벗어나 긍정적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행복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 전반에서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일상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래의 진로와 앞으로의 취업난, 사회적 역할의 수행에 대한 부담감, 또 한편으로는 다문화적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어떠한 면에서 행복감과 삶의 의미를 느끼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 혹은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이들

을 이해하고 지원해 주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방 법

조사대상자 및 조사절차

1차 조사는 FGI(Focused Group Interview)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특성들을 자유롭게 보고하게 하였다. 이 때, 바람직한 삶의 특성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삶의 특성들도 보고하도록 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경남의 P공대 20명, 경기도 A대 20명, 충남 H대 20명 등 남녀 대학생 60명 이었다. 이들로부터 196개의 바람직한 삶의 특성들이 도출되었으며, 중복응답을 제외하고 136개의 특성문항들이 남게 되었다.

2차 조사는 136개의 특성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하여 이들 특성들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M대와 충남 H대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각 특성이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 6점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6: 매우 중요하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3점 미만의 평균 평정치를 보이는 문항이 24개로 나타났고, 최종 112개 특성들의 유사성을 내용 분석한 결과 14개의 요인(긍정적 대인관계, 자기관리 및 책임감, 자기수용, 자율성, 삶의 목적, 자기개발, 가족정체성, 사랑, 학업적 능력과 관심, 이타성, 가치관 및 신념, 건강, 종교, 경제력)으로 범주화 하였다. FGI를 통해 제시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들을 요인별로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들 14개 요인들의 일개념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도 평정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하나의 요인에 비교적 높은 요인부하량(.45 - .83)을 나타내고 있었다.

3차 조사는 165명의 충남 H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 조사 결과 도출된 112개 바람직한 삶의 특성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바람직한 삶 척도(각 척도 당 8문항, 부록 참고)와 주관적 안녕감 척도, 즉 삶의 만족도 척도와 정서적 안녕감 척도(정적정서, 부적정서)를 함께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바람직한 삶의 특성 문항들과 주관적 안녕감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가능한 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하라고 지시받았다.

조사도구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조명한·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수정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WLS는 모두 5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정서적 안녕감

지난 한 달 동안의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1(전혀 없다)에서 7(항상)의 7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 측정에는 기쁨, 자부심, 애정, 그리고 만족감의 4가지의 정적 정서와 공포, 화냄, 슬픔, 그리고 죄책감의 4가지의 부적 정서를 포함하고 있었다. 각각 4 개의 정서의 경험빈도의 평균치를 정적 정서점수와 부적 정서점수로 사용하였다.

바람직한 삶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FGI결과를 바탕

표 1. 바람직한 삶의 요인에서의 높은 특성과 낮은 특성

차원	수준	정 의
사랑	높은 특성	이성을 사랑하고, 또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고 그녀)와 친밀감을 느낀다. 애인을 만나는데 자연스럽다.
	낮은 특성	이성과 데이트 할 때 큰 어려움을 느낀다. 사랑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이성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애인을 만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학업적 능력 및 관심	높은 특성	지식을 꾸준히 탐구하며 학업에 열중한다. 지적 능력을 인정받고 학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지적 관심이 높으며 책 읽기를 좋아한다.
	낮은 특성	지적 능력이 낮으며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편이다. 학교 공부 보다는 비학업적 활동에 더 흥미를 느낀다. 지적 관심이 낮으며 책을 자주 읽지 않는다.
이타성	높은 특성	타인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즐겁다.
	낮은 특성	남을 배려하기 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현실적이고 이해 타산적이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가치관 및 신념	높은 특성	뚜렷한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고 소신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인간의 기본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낮은 특성	인간의 도리와 도덕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정직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뚜렷한 가치관이나 소신이 없다.
건강	높은 특성	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바른 성지식을 갖고 있다. 건강을 위해 술, 담배를 조절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의료전문가의 충고 지시를 잘 따른다.
	낮은 특성	건강을 위한 일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편이다. 올바른 성지식과 건강지식이 부족하다.
종교	높은 특성	신앙이나 종교활동에 큰 관심이 있다. 종교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신앙과 종교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낮은 특성	종교적 교리는 자신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 종교에 관심이 없고 종교적 삶을 사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경제력	높은 특성	비교적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생활을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며, 돈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자신의 생활비는 스스로 충당하려고 하며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노력한다.
	낮은 특성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님께 전적으로 신세를 지고 있다. 늘 경제적으로 부족함을 느낀다. 물질적 부족함으로 어려움이 많다.

표 1. 계속

차원	수준	정 의
긍정적 대인 관계	높은 특성	주변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대해 관대하고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믿음만한 친구들이 많다. 선후배들과도 조화롭게 지낸다.
	낮은 특성	주변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타인에 대하여 개방적이거나 배려하기 보다는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친구나 선후배가 거의 없다.
자기 관리 및 책임감	높은 특성	자신이 목표한 것에 최선을 다한다. 문제를 회피하기 보다는 주어진 일이나 상황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한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한다. 개인문제나 시간, 용돈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
	낮은 특성	문제에 대해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유혹이나 충동을 잘 이기지 못한다. 개인적인 문제나 시간, 용돈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 못한다.
자기 수용	높은 특성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과거의 삶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며,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으며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간다.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수용한다.
	낮은 특성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삶에 실망을 느끼는 편이다. 자신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성격에 만족하지 못한다.
자율성	높은 특성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낮은 특성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때 남에게 의지하려고 한다.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들(부모님, 친구들)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한다.
삶의 목적	높은 특성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는 삶을 산다.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장래에 대해서 늘 생각한다. 자신의 인생에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이 알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낮은 특성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거의 없다. 삶에 대한 목표나 방향 감각이 뚜렷하지 않다.
자기 개발	높은 특성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노력한다. 발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새로운 분야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시도하려고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낮은 특성	새로운 환경과 상황이 부담스럽고,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싶어 하며, 새로운 삶의 영역을 시도하거나 확장시키는데 관심이 없다.
가족 정체성	높은 특성	자신의 가족을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높으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간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낸다.
	낮은 특성	자신의 가정을 가치롭게 여기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낀다.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적고, 가족들과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112개의 바람직한 삶의 특성들을 자신이 얼마나 갖추었나를 6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 검사에서 측정하는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14가지 구성요인은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관리 및 성실성, 자기수용, 삶의 목적, 가족 정체성, 사랑, 이타성, 자율성, 건강, 종교, 학업적 능력 및 관심, 자기개발, 경제력, 가치관 및 신념이다.

결 과

하위척도 분석

신뢰도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14가지 구성요인을 측정하는 14개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종교 (.93), 삶의 목적 (.82), 자율성 (.78), 가족 정체성 (.75), 가치감 및 신념 (.75), 사랑 (.75), 학업적 능력과 관심 (.73), 자기개발 (.68), 이타성 (.67), 자기 수용 (.67), 자기관리 및 책임감 (.66), 대인관계 (.64), 경제 (.63), 건강 (.61),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수용할 만한 신뢰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각 척도의 문항들과 신뢰도계수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주관적 안녕감의 3가지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α 값이 .83(삶의 만족도), .81(정적 정서), 그리고 .71(부적 정서)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요인분석 결과도 3개의 독립적인 요인(삶의 만족, 정적 정서, 부적 정서)이 도출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은 .58에서 .82 사이로 비교적 높았다.

일개념성

또한 바람직한 삶의 14개 요인들과 주관적 안

녕감의 3개 요인들의 일개념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대부분의 요인들에서 아이겐 값이 1보다 큰 요인이 하나씩 도출되었고 요인부하량도 .45에서 .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각 이론 변인을 측정하는 측정변인들의 수렴타당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바람직한 삶의 질 3개 척도(삶의 목적, 대인관계, 건강)에서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이 척도들에서 두 번째 요인은 역방향(reverse)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법요인(method factor)으로 나타나 내용상으로는 동질적 변인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간 상관

그 외에도 바람직한 삶의 14개 척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중간정도의 크기를 보였는데, 자기개발과 자기관리 요인간의 관계가 .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긍정적 대인관계와 건강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09로 가장 낮았다(표 2). 이와 같은 상관계수들의 크기는 바람직한 삶의 14개 구성요인들이 비교적 변별되는 개념 들임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 요인들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도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 간에는 .46,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정서 간에는 -.28, 그리고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와의 상관관계는 -.09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삶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단순상관관계 분석

먼저 바람직한 삶의 요인들과 주관적 안녕감 요인들 간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삶의 만족도와는 자기수용(.54)과 가족정체성(.41), 학업능력(.37)이 가장 강한 상관을 보인 반

표 2. 바람직한 삶의 요소 및 주관적 안녕감 요소 간의 상관계수

척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대인관계																
2. 자기관리	.444***															
3. 자기수용	.378***	.576***														
4. 삶의목적	.32***	.612***	.456***													
5.가족정체성	.393***	.513***	.588***	.429***												
6. 사랑	.407***	.33***	.395***	.174*	.407***											
7. 이타성	.416***	.352***	.231**	.209**	.29***	.27***										
8. 자율성	.219**	.51***	.417***	.411***	.311***	.238**	.177*									
9. 건강	.089	.307***	.289***	.269***	.316***	.099	.149	.100								
10. 종교	.106	.088	.187*	.159*	.121	.139	.084	-.052	.231**							
11. 학업능력	.269***	.613***	.539***	.521***	.476***	.395***	.252**	.384***	.292***	.178*						
12. 자기개발	.539***	.663***	.563***	.567***	.479***	.453***	.359***	.538***	.239**	.095	.54***					
13. 경제력	.016	.275***	.363***	.145	.157	.102	.096	.295***	.096	.005	.242**	.265***				
14. 신념	.478***	.643***	.591***	.444***	.529***	.377***	.446***	.527***	.235**	.009	.445***	.647***	.151			
15. 삶의만족	.073	.314***	.539***	.263***	.408***	.24**	.196*	.163*	.260***	.236**	.372***	.245**	.434***	.18*		
16. 긍정정서	.308***	.445***	.626***	.352***	.448***	.458***	.221**	.360***	.312***	.167*	.429***	.479***	.242**	.523***	.452***	
17. 부정정서	-.108	-.108	-.047	.017	-.055	-.043	.045	-.084	-.100	.134	.059	-.142	.043	-.112	.048	.019

* p<.05, ** p<.01, *** p<.001

면, 이타성(.20), 자율성(.16), 대인관계(.08)가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다. 정적 정서와는 역시 자기수용(.63)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그 외에 사랑(.46), 가족정체성(.45), 자기관리(.45)가 유사한 상관의 정도를 나타냈다. 반면, 이타성(.17)과 종교(.24)는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였다. 한편 부정적 정서와는 대부분의 바람직한 삶의 요인들이 -.10 미만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관적 안녕감의 3개 구성요인들과 14가지의 바람직한 삶이 구성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바람직한 삶의 척도는 삶의 만족과 .47, 정적 정서와는 .65로 비교적 상관이 높았고, 부정적 정서와는 -.11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주관적 안녕감 전체(삶의 만족+긍정정서+부정정서)와 바람직한 삶의 척도와는 .58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단계적 회귀분석

다음으로 두개의 개념 간 관계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바람직한 삶의 14개 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주관적 안녕감 3요인을 준거변인으로 놓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어떤 측면의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이 그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안녕감 요소인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3).

표 3에 제시되어 있듯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서는 자기수용과 경제력, 가치관 및 신념, 그리고 가족정체감이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변량은 40% 정도였다. 정적 정서와는 자기수용, 사랑, 가치관 및 신념, 그리고 건강 순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변량은 47%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 바람직한 삶의 요소들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즉, 자기수용, 가족정체성, 가

표 3.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ΔR^2 , β)

준거변인	삶의 만족도	정적 정서	부적 정서
전체	자기수용(.290, .414 ^{***})	자기수용(.391, .396 ^{***})	
	경제력(.066, .282 ^{***})	사랑(.053, .223 ^{***})	
	가치관/신념(.017, .228 ^{**})	가치관/신념(.022, .173 [*])	
	가족정체성(.030, .225 ^{**})	건강(.017, .135 [*])	
남학생	자기수용(.241, .629 ^{***})		
	대인관계(.141, .327 ^{**})		
	가족정체성(.062, .336 ^{**})	자기수용(.429, .497 ^{***})	사랑(.090, -.300 [*])
	가치관/신념(.044, .332 [*])	사랑(.089, .338 ^{**})	
	경제력(.040, .221 [*])		
여학생	자기수용(.316, .463 ^{***})	자기수용(.363, .453 ^{***})	
	경제력(.050, .246 ^{**})	건강(.051, .246 ^{**})	
		사랑(.035, .200 [*])	

* p<.05, ** p<.01, *** p<.001

치관/신념, 경제력) 외에 긍정적 대인관계가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사랑 요인이 부정 정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대생의 경우 자기수용과 경제력만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논 의

국내외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발달 상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대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 혹은 좋은 삶의 구성요소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good life)' 척도를 제작한 후, 이 구성개념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FGI를 통해 도출된 바람직한 삶의 특성들을 분류한 결과, 긍정적 대인관계, 자기관리 및 성실성, 자기수용, 삶의 목적, 가족 정체성, 사랑, 이타성, 자율성, 건강, 종교, 학업적 능력 및 관심, 자기개발, 경제력, 가치관 및 신념과 같은 14개 요인들이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심리학 이론들에서 제기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Ryff(1989)가 제안한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의 6개 요인들(자아수용,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매우 포괄적인 삶의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 젊은 대학생인 만큼 이들의 발달과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랑과 학업적 능력 및 관심, 자기개발 요인도 바람직한 삶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4개 요인이 도출된 본 연구결과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가족, 대인관계,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또는 종교 등이 서양문화권에 비하여 동양문화권에서 보다 빈번히 언급됨을 보고한 Lee, et al.(1999)의 연구결과와도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14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09에서 .66으로 나타난 점과 주성분 요인분석 결과는 이들 요인들이 서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있지만 비교적 변별이 가능한 구성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삶의 질이나 안녕감의 구성요소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이 Diener(1985)나 Ryff(1989)가 제시한 구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소들을 직접 탐색, 도출하고, 이들 요인들이 서로 관련성은 있지만 변별이 가능한 일개념성 요인들임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위 14개 요인들을 측정하는 대학생의 바람직한 삶 척도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과 .47, 정적 정서와는 .65로 비교적 상관이 높았고, 부정정서와는 -.11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또한 주관적 안녕감 전체(삶의 만족+긍정정서+부정정서)와 바람직한 삶의 척도와는 .58로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바람직한 삶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가 지지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 요인들간의 단순상관관계 분석 결과도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 간에는 .46, 삶의 만족도와 부정적 정서 간에는 -.28, 그리고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와의 상관관계는 -.09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두 정서가 서로 독립적 구성개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 되었다(Diener & Emmons, 1984; Warr, Barter & Brownbridge, 1983;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그 다음으로 바람직한 삶의 구성개념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두 개념 간 단순상관관계분석과 주관적 안녕감을 준거변인으로 하고 바람직한 삶의 14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상관관계 분석 결과, 삶의 만족도와 정적 정서에 대해 자기수용(.539)과 가족정체성(.408), 학업능력 및 관심(.372)이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Ryff의 심리적 안녕감 요인들 중 자아수용 요인이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Ryff, 1989; Ryff & Keyes, 1995; 차경호, 2001;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또한 대학생들의 발달 단계상 정체감확립의 과제가 중요한데, 이 과정은 집단 정체감과 개인 정체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고 또 학업이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들의 발달과제와 바람직한 삶의 요인들 간에 일관성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경제력이 삶의 만족도에, 자기 수용, 사랑, 자기관리, 학업적 능력과 관심, 신념 등이 정적 정서와 높은 관계를 보였다.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도 도출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은 자기수용과 경제력, 가족 정체감 요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자기수용, 사랑, 신념, 건강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 안녕감 요인 중 부정적 정서는 14개 바람직한 요인들과 매우 약한 단순상관을 보이고 있고, 회귀분석에서도 남자대학생의 경우 사랑 요인이외에 특별히 유의미한 예측변인도 발견되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

겠다.

마지막으로 성별로 바람직한 삶의 요소들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자대학생의 경우 자기수용 다음으로 대인관계, 가족 정체성, 가치관/신념, 경제력이 삶의 만족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여대생의 경우 자기수용과 경제력만 유의미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 지향적이라고 알려진 연구 결과(Gilligan, 1982; Miller, 1986 등)와는 상이한 결과이지만, 김지경과 김명소(2003)가 전국적인 표본(약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집단주의적인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가 여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며, 관계성의 내용이 다를 뿐 대인관계성의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특정 연령에서는 남성의 관계적 특성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우리나라 남자대학생의 경우 선후배 사이의 인간관계나 친구사이의 의리가 유난히 강조되므로 주관적 안녕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 같다. 이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들(조명한, 차경호, 1998; Diener & Suh, 2000)과 관련되어 있으며, 바람직한 삶이 의미하는 바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생각할 수 있다. 3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출된 바람직한 삶의 요인이나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을 갖는다. 앞으로의 삶의 질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단위의 응답자를 포함시키고 연구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 노인 등으로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고문헌

- 김지경, 김명소 (2003).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에 관한 연구. 2003 춘계 여성심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5-50.
- 김명소, 차경호, 임지영 (2002). 대학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분석. 2002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19-32.
- 차경호 (2001).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상담연구, 9(1). 7-26.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Aspinwall, L. G. & Taylor, S. E.(1992). Modeling cognitive adaptat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individual differences and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89-1003.
- Bradburn, N. M. (1986).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ampbell, A. (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117-124.
- DeNeve, K. M. & Cooper, H.(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24(2), 197-229.
- Diener, E., & Diener, M.(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 663.
- Diener, E. & Emmons, R. A.(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Suh, E., Lucas, R., & Smith, H.(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mmons, R. A., & Diener, E. (1985). Personality correlates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 89-97.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wan, V. S. Y., Bond, M. H., & Singelis, T. M. (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Lee, D., Park, S., Uhlemann, M., & Patsula, P. (1999). What makes you happy?: A comparison of self-reported criteria of happiness between two cult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351-362.
- Lucas, R. E., Diener, E., & Suh, E.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tones, M. J., & Kozma, A. (1985).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happiness scales: A second order factorial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7, 19-28.
- Warr, P., Barter, J., & Brownbridge, G. (1983). On the independence of negative and positive affec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4, 644-651.

The Structure of Good Life and the Relationship with Subjective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Myoung So Kim

Division of Business and Economics,
Hoseo University

Jiyoung Lim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d the perceptions of Korean college students about what is a good life for them or what can make them happy and good. A total of 60 students participated in FGI(Focused Group Interview), and their responses were reviewed by the present investigators independently and 14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content analysis. The list of 132 good life characteristics was administered to 200 college students in three geographic regions of Korea to assess the importance of each item in good life through 6-point Likert scales. The 20 items below the average scale value 3.0 were deleted, and the Good Life Inventory for college students was constructed with 112 items in 14 factors. The Good Life Inventory and the Scale of Subjective Well-being were administered to another 165 students in order to assess their goodness and happiness through 6-point Likert scale.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showed that most factors of good life were unidimensional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fa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resulting in support of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inventory. The results of step-wise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self acceptance was the best predictor of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For male college students,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will, family identity, and financial ability in addition to self acceptance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while the financial ability factor was added in the group of female students. Limitations of the present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 Good Life, Subjective Well-being, Gender Difference

부록. 바람직한 삶 척도 문항 및 신뢰도계수

● 긍정적 대인관계(a=.64)

- ① 나는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②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다.
- ③ 나는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다.
- ④ 나는 선후배들과 조화롭게 지낸다.
- ⑤ 나는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다.
- ⑥ 나는 항상 만나던 친구들과만 교류한다.
- ⑦ 나는 주변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편이다.
- ⑧ 나는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다.

● 자기수용(a=.67)

- ① 나는 이제까지의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
- ②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간다.
- ③ 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④ 나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 ⑤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으며 살아왔다.
- ⑥ 내 성격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다.
- ⑦ 나 자신에게 실망을 느끼는 편이다.
- ⑧ 나는 나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가족 정체성(a=.75)

- ① 나는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한다.
- ②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
- ③ 나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 ④ 나의 가족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 ⑤ 나는 나의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낸다.
- ⑥ 나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편이다.
- ⑦ 나의 가정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 ⑧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것 같다

● 자기개발(a=.68)

- ① 나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 ② 나는 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③ 나는 재충전을 위해 여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한다.
- ④ 나의 주어진 삶이 상황을 발전시키고 개선하는데 관심이 많다.
- ⑤ 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시도해 본다.
- ⑥ 나는 자주 변화되는 환경과 새로운 상황이 부담스럽다.
- ⑦ 나는 새로운 환경과 변화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 ⑧ 현재의 내 삶의 영역을 넓힐 생각이 없다.

● 이타성(a=.68)

- ① 나는 주위 사람의 행복에 관심이 많다.
- ② 나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다.
- ③ 나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 즐겁다.
- ④ 나는 타인의 삶을 소중하게 여긴다.
- ⑤ 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 ⑥ 나는 현실적이고 이해타산적인 편이다.
- ⑦ 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
- ⑧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다

● 자율성(a=.78)

- ① 나는 다른사람에의존하기보다는내생각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 ② 나는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 ③ 나는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 ④ 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 기대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 ⑤ 나는 결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 ⑥ 나는 내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 ⑦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남에게 의지하는 편이다.
- ⑧ 나는논쟁의여지가있는문제들에대해서나의견을내세우지못하는편이다.

● 종교(a=.93)

- ① 나는 종교적 믿음으로 산다.
- ② 나는 종교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 ③ 신앙과 종교는 나의 삶에서 중요하다.
- ④ 나는 종교구원(예: 성경)에 나온 내용대로 따르려고 노력한다.
- ⑤ 나는 자신의 종교를 친지에게 권한다.
- ⑥ 내 종교나 신앙을 친구에게 믿으라고 할 생각은 없다.
- ⑦ 나는 신앙에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의지에 따른 삶을 산다.
- ⑧ 종교적 교리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

● 자기관리 및 책임감(a=.67)

- ① 내가 목표로 한 것에 최선을 다한다.
- ② 나에게 주어진 일이나 상황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③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한다.
- ④ 나는 내 시간과 용돈을 잘 관리하는 편이다.
- ⑤ 나는 맡은 일은 성실히 하는 편이다.
- ⑥ 내 생활(개인문제, 시간)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 ⑦ 나는 유혹이나 충동을 잘 잘 이기지 못하는 편이다.
- ⑧ 나의 문제에 대해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 삶의 목적(a=.81)

- ① 나는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 ②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삶을 산다.
- ③ 나는 항상 미래(장래)에 대해서 생각한다.
- ④ 나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 ⑤ 나의 삶에서 목표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 ⑥ 나는 장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 ⑦ 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 ⑧ 나는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지는 잘 모르겠다.

● 사랑(a=.75)

- ① 대학생활에서 애인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② 나는 이성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다.
- ③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다.
- ④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낸다.
- 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 ⑥ 나는 사랑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 ⑦ 나에게 이성교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 ⑧ 나는 이성과 데이트 할 때 큰 어려움을 느낀다.

● 학업적 능력과 관심(a=.73)

- ① 나는 학업에 열중한다.
- ② 나는 지식을 꾸준히 탐구한다.
- ③ 나는 학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 ④ 나는 지적 능력을 인정받고 살아간다.
- ⑤ 나는 지적 관심이 높다.
- ⑥ 나는 책을 자주 읽지 않는다.
- ⑦ 나는 학교공부보다는 과외(대외)활동에 더 흥미를 느낀다.
- ⑧ 나는 학교공부에 열중하지 못하는 편이다.

● 가치관 및 신념(a=.75)

- ① 나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는다.
- ② 나는 양심적이고 소신있는 삶을 살아간다.
- ③ 나는 기식적이지 않은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
- ④ 나는 뚜렷한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다.
- ⑤ 나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간다.
- ⑥ 나는인생을살아가는데이성적정직성은별로중요하지않다고생각한다.
- ⑦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⑧ 나는 인간의 도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 건강(a=.63)

- ① 나는 건강을 위해 술, 담배를 조절한다.
- ② 나는 바른 성 지식을 갖는다.
- ③ 나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편이며 몸에 해로운 음식을 피한다.
- ④ 나는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오래두지 않고 의료기관을 찾는다.
- ⑤ 나는 의료 전문가(의사, 약사 등)의 충고, 지시를 잘 따른다.
- ⑥ 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
- ⑦ 나는 건강을 위해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 ⑧ 나는 아침식사를 거르는 편이다.

● 경제력(a=.63)

- ① 나는 돈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
- ②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은 생활을 한다.
- ③ 나는생활을유지하는데는최소비용을충당할수있을정도돈을벌는다.
- ④ 나는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노력한다.
- ⑤ 나는 스스로 내 생활비를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다.
- ⑥ 나는 물질적 부족함으로 어려움이 많다.
- ⑦ 나는 경제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낀다.
- ⑧ 나는 부모님께 전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